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I. 의의

어음, 수표행위의 독립성이란 발행과 배서, 발행과 이수, 제1배서와 제2배서 등과 같이 하나의 어음, 수표에 순차적으로 어음, 수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앞의 행위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 요건의 흠결로 무효가 되더라도 후속행위는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효하다는 특성을 말한다. 대부분의 어음, 수표행위는 그에 의해 행위자가 어음, 수표상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어음, 수표행위의 독립성 또는 독립의 원칙이란 어음채무부담의 독립성을 의미한다. 어음수표행위의 무인성이 어음행위와 원인행위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면, 어음수표행위의 독립성은 어음수표행위 상호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II. 내용 및 효용

사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앞의 행위가 무효이면 그 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후속행위도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간에 널리 유통되는 어음, 수표의 경우 각 어음, 수표행위간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음, 수표 취득자들은 어음, 수표면상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적 무효사유를 일일이 조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는 어음, 수표의 유통성을 해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어음, 수표행위별로 독립적으로 그 효력유무를 정하는 독립의 원칙은 어음, 수표의 유통성 증대에 기여한다.

III. 이론적 근거

독립성에 관하여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발행인과 보증 이외의 다른 어음수표행위에 독립성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 만일 적용된다면 무엇을 근거로 할 것인지 문제된다. 즉 독립성은 법이 정책적으로 정한 것인가 아니면 어음수표행위의 실질상 당연한 원칙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학설이 나뉜다.

(1) 예외법칙설

사법 일반원칙에 의하면 전제되는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그에 따르는 다른 후행행위도 목적을 잃고 무효가 되고 마는 것이지만, 이 원칙은 어음·수표행위에 적용하면 어음·수표의 취득자가 일일이 선행행위의 실질상 유·무효를 조사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어음·수표거래의 안전과 그 유통성을 확보하고 특히 외관을 신뢰하고 어음·수표를 취득한 사람을 보호할 목적으로 어음법·수표법이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을 둔다는 견해로 우리의 통설이다.

(2) 당연법칙설

여러개의 어음수표행위가 하나의 지편위에 중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그 각각은 다른 어음수표행위와는 관계없이 어음수표상의 기재문언을 그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독립적인 채무부담의 단독행위이므로 그 효력을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이다.